

나, 海印寺經版印本製作申請。
以上二件은 承認保留。

◎ 迎日郡 杞溪面 支石墓發掘調査

國博에서는 지난 二月 二七日부터 三月 一〇日까지 杞溪面一帶에 分布하는 南方 式支石墓의 發掘調査를 實施하였는데 完存하는 支石墓 六基를 包含한 十四個所에서 磨製石劍破片, 磨製石斧 및 土器片을 發見하였다. 調査者는 館長 金載元, 金正基, 韓炳三 諸氏이다.

◎ 國博 月例發表會

國立博物館에서는 三月 二十三(土) 國立原子力研究所保健物理室 研究官 補高 鍾健氏를 招聘 綠透視撮影 및 測定을 接用하는 古文化財研究의 可能性, 展望에 關한 講座를 가졌다.

이에는 特히 同博物館所藏 金銅彌勒半跏像 등의 透視寫眞을 가지고 鑄鐵의 質 또는 鑄造當時의 内部補強 또는 龜裂 등 製作途上의 綜合的인 問題가 論議되었다.

◎ 李朝白磁항아리展示會

國立博物館에서는 在京 所藏家의 協助를 받아 四月 六일부터 二八일까지 李朝 白磁항아리 約一〇〇點을 展示한다. 出品者는 金忠信, 李洪根, 朴秉來, 金煥基, 薛元植, 朴春榮, 諸氏等이며 國博所藏出品數는 約二〇點이다.

◎ 南大門重修工事

南大門重修工事に 있어서는 그동안 屋蓋覆瓦工事が 專任監督官 申榮勳氏의 監督下에 四月 一日 完了하였으며 現在 殘餘의 木部工事が 進行되고 있다. 丹青材料는 三月 二八日 落札購買되었으며 丹青施工과 環境整理工事が 남아 있다.

◎ 甕棺發掘

서울大 考古人類學科에서는 同學科主任教授 金元龍氏 指導下에 오는 四月 十五日부터 約二週間豫定으로 光山郡 飛鴉面 新昌里 山月部落의 甕棺群을 發掘한다 고 한다.

◎ 潤松墓所省墓

四月 五日 清明日에 潤松 全鑿弼先生家族과 同人들은 墓所에 省墓하였다.

印度通信(四)

「파키스탄」의 서울 「라울필드」에서

黃 壽 永

二月 十二일부터 十八日에 이르는 六日間 「뉴·델히」에서 心身을 쉬을 수 있었읍니다. 궁금하던 國內 뉴스도 들었고 同人과 家族의 소식이나 考古美術도 이곳서 받고 보니 한층 반가웠읍니다. 方公使宅에서는 오래간만에 고향음식을 맛 볼 수도 있었읍니다. 那사이 國立博物館長 「모리」女史의 厚意로 館內의 保存研究施設을 볼 수 있었으며 하루는 歸國途上의 馬關樹夫妻와 再會를 즐기기도 하였읍니다. 한편 韓總領事의 配慮로서 「세이론」과 「파키스탄」의 入國書類를 提出하였 으며 「아세아財團」의 Park氏를 찾아 앞으로의 스케줄을 의논하기도 하였읍니다.

二月 十九日 아침 「볼베이」行急行車로 다시 「뉴·델히」를 떠났읍니다. 沿線의 風景은 北印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잠시」驛을 지나서부터 丘陵이 멀리 或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오랫동안 平原에 익숙한 눈에는 珍奇하였읍니다. 午後 七時가 조금 지나서 산치驛에 停車하였는데 이것은 一等客에 대한 特惠로서 이날의 下車客은 나 혼자 뿐이어서 未安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읍니다. 驛 밖에 나서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오랫동안 그림던 「산치」에 當到하였다고 생각하니 즐거움이 솟아 올랐읍니다. 印度의 어느 곳 보다도 가장 오랜 塔이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保存되어 있는 이 곳은 한번 와야겠다고 꿈꾸던 곳이기에 문입니다. 同時에 恩師인 신 아玄 高裕燮先生의 追念이 간절하였던 곳도 이 곳이었습니다. 翌朝 宿舎의 방을 나서니 낮막한 丘陵 위에 圓墳形塔身과 그 위의 傘蓋가 눈에 띄었읍니다. 아직까지 平地에 있으리라고 速斷하여 온 것은 잘 못임을 깨달았는데 印度의 寺院이나 記念物이 高地에 자리잡은 好例를 이곳에서도 볼 수 있었읍니다. 「산치」에서 三日間 하루 두 차례씩 丘頂에 올라서 塔, 伽藍址, 博物館을 둘러 撮影도 하였고 或은 塔門에 滿鑲된 아름다운 彫刻을 즐기기도 하였고

歸路에는 中腹에 자리잡은 第二塔에 이르러 夕陽에 홀로 앉아 여러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읍니다. 果然「산치」는 期待에 어긋남이 없었읍니다. 우리나라 佛塔 研究에 關心을 모아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이곳이었으며 새로운 着眼點 과 意欲을 얻은 것도 또한 이곳이었읍니다.

二月二十二日 晩車로 「산치」를 떠나 南下하러 翌日 새벽 Jalgaon에서 下車하였읍니다. 그곳서 첫 배스를 타고 Ajanta를十里거리는 Fardapur宿舎에 이르니 十時 가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二月二十五日에 이르러 三日間 Ajanta를 來往하면서 여러 石窟을 仔細히 볼 수 있었읍니다. 낮은 山中에 半月形의 岩壁이 돌고 있는 紀元後부터 八世紀에 이르는 사이에 約三〇의 大小石窟을 마련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佛敎窟뿐입니다. 이들은 塔窟과 僧院窟로 區別되는 바 그들에서 歷代의 變遷相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窟內에는 豫想보다도 많은 壁畫가 保存되어 있었읍니다. 初期石窟은 中央에 塔을 奉安하였을 뿐인데 時代가 나려옴을 따라 塔身뿐 아니라 僧院窟의 奧壁이나 周圍에 佛像彫刻이 漸增한 것은 時代에 따르는 禮拜對象의 變遷相을 보이는 것이었읍니다. 이같은 趨勢는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도 同一한 經遇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아잔타」는 內陸이며 周圍에는 山林이 없어 氣溫이 높았으므로 午後에는 宿舎에서 쉬기로 하였읍니다. 第二次의 旅行은 山中의 石窟과 僻地의 伽藍址 特別히 塔址가 重要な 目標이기에 健康에는 特別히 留意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우기 南下함에 따라 더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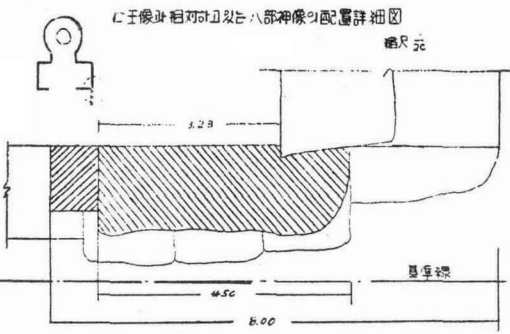
二月二十六日 아침 六時 첫 배스便으로 「아우랑가바트」를 經由하여 午後에 「에로라」石窟에 이르렀읍니다. 이곳 宿舎는 石窟頂上에 자리잡고 있어 西쪽으로 展開하는 大平原의 眺望은 참으로 壯觀이었읍니다. 石窟은 모두 西向하였으며 延長二km가 넘는 丘陵에 「佛敎」·「힌두」·「제인」의 三敎窟이 連續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紀元後五—八世紀의 開鑿이라고 합니다. 佛敎窟은 南쪽에 있어 合計十二窟인 바 그중에서도 十號의 塔院이나 十一·十二號의 三層窟은 特別히 注目할 하였읍니다. 이 三層의 兩窟은 서로 隣接하고 있어 規模도 거의 같사오나 佛像彫刻은 十二窟上層周壁의 佛菩薩이 우수하였읍니다. 特別히 觀音像과 七佛坐像의 配置는 우리나라 佛敎와의 關聯에서 例컨대 戰災로 소각된 五臺山月精寺의 七佛寶殿을 聯想케 함도 있었읍니다. 同時에 이 三層 兩窟은 아마도 懸超가 기록한 「三重作樓」임을 틀림없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었읍니다. 規模가 큰 三層窟은 印度의 많은 石窟中이 「에로라」에서 볼 수 있을 뿐이는데 懸超가 南印 길에서 山

中의 一大事를 찾아 「非人所作. 竝鑿山爲柱. 三重作樓. 四面方圓三百餘步」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懸超가 記錄한 唯一의 石窟이 아마도 이곳 「에로라」의 兩大 三層窟로 생각되오니 그곳에 오를 때마다 깊은 感懷를 느낄 수 있었읍니다. 佛敎窟以外에도 「힌두敎」에 屬하는 「가이라사」 「岩石祠院」나 「제인敎」의 數窟도 規模와 像設에서 代表的인 造型이었읍니다. 이곳에서도 三日間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매우 不足함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四月二日

石窟庵通信(八)

鄭 明 鎬

石窟庵入口에 屋蓋와 門을 具備한 木造建築物를 建築함에 있어 入口左右의 石築을 解體하기로 決定되어 一九六二年 十月二十八일부터 年末까지와 一九六三年 一月十一일부터 二月十九일까지의 二次에 걸친 作業으로 入口左右의 八部神像의 裏面に 附着되었던 石築 및 풍크리트를 完全히 除去하였다. 이 作業으로 仁王像과 서로 相對하고 있는 八部衆像의 配置와 構造方法이 밝혀졌다(詳細圖는 別紙와 같다)



이와 同時에 石窟前方과 周圍石築은 在來式으로 築造하기 爲하여 佛國寺 石築構造에 對한 實測(六一·一〇·二四—一〇二)과 佛國寺 石築에서 使用되고 있는 바와 같은 巨石의 自然石이 必要함으로 그 採取運搬作業이 始作되어 一九六二年 年末까지 約二百個 今年 二月二十일까지 豫定量 四百個의 採取運搬을 마쳤다.

또한 三月一日부터 十日까지는 窟內 諸像들의 彫刻表面에 排出하고 있는 鹽化나트륨(NaCl)의 白粉의 作用으로 諸彫刻像의 表面이 侵蝕되어 있는 것을 막기 爲하여 攝氏五十度程度의 물로서 澗